

信川康氏 始祖 및 本貫의 淵源

신천강씨(信川康氏)의 원조(元祖)는 교화성사 강후(康侯) 공이다. 그의 아버지는 주나라 무왕(武王)의 첫째 아우이며 휘(諱)는 봉(封)이요, 시호(諡號)는 강숙(康叔)이요 작위(爵位)는 강숙위군 제후(康叔衛君諸侯)이다. 그의 둘째 아들 후(侯)는 단기 1212년(기원전1121년) 기자(箕子)와 함께 평양에 들어와 금법팔조(禁法八條)를 제정하여 국정(國政)을 협찬(協贊)하고 국교(國教)를 선양한 공로로 관정대훈공신(關鼎大勳功臣)에 책록(策祿)되었고 백성들은 이 분을 교화성사(教化聖師)라 일컬었으며 기자는 그의 아버지 시호 강숙(康叔)의 강자(康字)를 후(侯)에게 사성(賜姓)하므로써 신천강씨의 得姓祖가 되었다.

元祖 강후(康侯) 공의 68세손 강호경(康虎景)은 신라 말엽 호(號)는 세인들이 성골장군(聖骨將軍)이라 일컬었으며, 백두산으로부터 전국 각처를 유람하시다가 송도(松都) 부소산(扶蘇山) 마루아래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의 아들은 강충(康忠)이요, 강충의 아들이 강보육(康寶育)인데 그는 왕건 태조의 외고조부가 되며 왕건(王建)이 고려를 건국한 후 성골장군 강호경(康虎景) 공을 국조대왕(國祖大王)으로, 외고조부 강보육(康寶育) 공을 원덕대왕(元德大王)으로 추존(追尊)하였다.

그러므로 신천강씨(信川康氏) 시조(始祖)는 성골장군 · 국조대왕 강호경(康虎景) 공을 始祖로 모시고 있다.

시조(始祖)의 14세손 충열공(忠烈公) 강지연(康之淵)은 고종때 몽고 침입시(蒙古侵入時) 호종공신(扈從功臣)에 책록(策祿)되었고 신성부원군(信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신성(信城)은 신천(信川)의 옛 지명이다. 이때부터 본관을 신천(信川)으로 삼게 되었으며 이 분을 중시조(中始祖)로 받들어 황해도 신천군 북부면 산죽리 광복동 정남향으로 모셨지만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된 관계로 묘소(墓所)에 참배(參拜)할 수 없으므로 1973년 10월 관악산 기슭에 단

조(壇兆)를 조성(造成)하고 고려문하시중신성부원군휘지연공신단(高麗門下侍中 信城府院君諱之淵公神壇)을 마련하고 매년 10월3일 세향(歲享)을 드리고 있다.

중시조의 五代孫 상산백(象山伯) 강서(康庶)를 中祖로 하고 곡산(谷山)이란 별관을 일부 후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강서(康庶)의 손자 득룡(得龍 · 諡號 : 安靖)은 李太祖王妃 신덕고황후(神德高皇后)의 큰 오빠이다. 고려말 삼사우사(三司右使)로 있다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왕조(朝鮮王朝)가 건국되자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대의(大義)를 굽히지 않고 관악산에 들어가 연주암(戀主庵)에 살면서 매일 같이 연주대(戀主臺)에 올라가 송도(開城)를 바라보며 통곡했다고 한다. 이성계(李成桂)大王은 그의 충절을 가상히 여겨 안정(安靖)이란 시호를 내리고 안릉부원군(安陵府院君)에 봉했으며 그 후손 일부는 별관(別貫)을 안릉(安陵) 또는 재령(載寧)이라 쓰고 있는 가문도 있다.

상기의 내용을 고찰해 보면 본관(本貫)은 신천(信川)으로 정하여졌으나 信川으로부터 분관(分貫)되어 별관(別貫)으로 곡산(谷山) · 재령(載寧) · 안릉(安陵) · 충주(忠州) · 진주(晋州) 등이 있으나 信川康氏大宗會에서는 2007년 「信川康氏大同譜」를 거국적으로 발간하여 始祖 國祖大王 聖骨將軍 康虎景 公의 一祖之孫으로서 본관 「信川」을 단본(單本)으로 재통합(再統合)하여 大同團結이 계기(揭記)를 마련하였다.

2010. 6. 1.

信川康氏濟州道宗親會長 39世孫 漢齋 康政統 識